

# 삼성ENG, 베트남 비료 플랜트 완공

Phu My 요소 1일 2200톤 4월 생산예정 ... 내수의 35% 총당 가능

베트남이 한국의 도움으로 빠르면 4월부터 전체 비료 수요량의 35%를 자체 총당할 수 있게 됐다.

삼성엔지니어링이 2001년 8월부터 베트남 남부 바리아-붕타우 지역에서 건설하기 시작한 푸미(Phu My) 비료 플랜트 공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2004년 4월부터 비료가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.

삼성에 따르면, 푸미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의 공사 진행률은 현재 99.5%로 3월21일쯤이면 생산에 필요한 기계의 설치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기계적 준공(Mechanical completion)식을 갖게 된다.

삼성은 또 3월1일 시운전에 필요한 베트남 국가인수위원회(SAC)의 중간점검을 완전히 통과한 데 이어 3월 16일에는 요소 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이와 함께 베트남의 최대 국경일인 승전기념일인 4월30일까지 요소비료를 생산한 뒤 6월21일 베트남에 공장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

푸미비료 공장은 인근 해상에서 나오는 원료를 사용해 암모니아 비료 1350톤, 요소 비료 2200톤 등 1일 평균 3550톤을 생산해 농업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한국이 베트남의 석유화학 분야에서 수주한 최대(2억달러) 규모의 프로젝트인 푸미 비료 플랜트 공사는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공사(Petro Vietnam)가 발주한 3건 가운데 유일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삼성 등 국내기업의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.

플랜트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"Petro Vietnam이 추진중인 정유(중부지역) 및 비료(남부지역)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푸미 프로젝트는 공기 뿐만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품질수준을 유지해 베트남 측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"며 "완공도 되기 전에 베트남 고위관료 및 국회의원들의 견학코스로 자리잡았다"고 밝혔다.

베트남 정부 관계자들도 한해 수요되는 200만톤의 비료 가운데 70% 이상을 수입해온 베트남이 푸미공장 완공으로 2004년 하반기부터는 만성적인 비료 수입국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으며, 안정적인 비료 공급원 토대 구축을 통해 농업부문의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16>